



▲ 채권전략

Analyst 윤여삼

02. 6454-4894

yeosam.yoon@meritz.co.kr

The Bond Weekly

Safe Haven, 한국채의 위상

원화채가 강한 이유를 인정해도 추경은 신경 쓰자

우리의 예상보다 원화채권 강세가 지속되고 있다. 미국채의 안전자산 지위가 흔들렸던 것 대비 원화채야말로 안전자산의 위상을 보여주었다. 4월 금통위는 막판 높아진 인하기대에도 결국 동결로 결정되었지만, 국고금리는 장기물 중심 더 강해졌다. 외국인인 현선물 채권 모두 강한 매수세를 나타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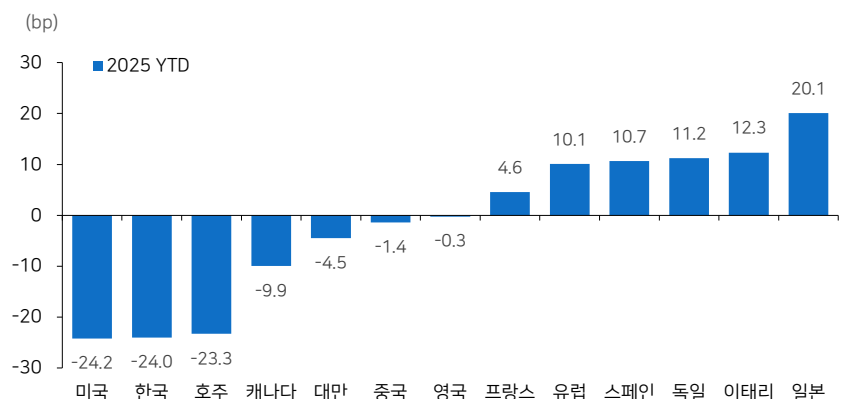
우리는 관세부과에 의한 충격에도 올해 기준금리 전망을 2.25%로 유지 중이며, 정책의 포커스는 통화보다 대선전후 드러날 추경 중심 재정정책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시장은 추경을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미뤄두는 반면, 둔화되는 경기 여건에 기준금리인하 기대를 높이고 있다. 우리는 경기하방 위험을 인정하더라도 현재 원화 채권이 일부 고평가 영역에 있다는 전망은 유지 중이다.

미국금리 아직 신뢰성 회복 과정, 관세협상 결과가 중요

미국채10년 금리는 지난 주 4.2~4.4% 사이로 변동성을 줄였지만, 안전자산의 지위를 의심받으며 여전히 불안하다. 4월 7일 주간 물렸던 투매는 진정되어도 미국채 매도 주체를 두고 여전히 '내부 수급꼬임 vs 대외 매도' 사이 혼선이 많다. 누가 매도를 했던지 트럼프 정책의 불확실성이 유발한 충격임은 분명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주요국 관세부과를 유예하고, 중국과도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을 강조했다. 그 와중에 트럼프 대통령의 금리인하 주문을 수행하지 않고 있는 파월 의장을 해고하겠다는 으름장을 놓고 있다. 미중 정상회담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6월까지 아직 풀어가야 할 과제가 많다.

주요국 10년금리 등락폭, 한국 어느새 주요국 중 금리가 큰 폭 하락한 국가에 위치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원화채가 강한 이유를 인정해도 추경은 신경 쓰자

4월 2일 '해방의 날' 이후 추가급락과 미국금리의 이례적인 상황까지 겪은 결과, 현재 필자는 몸이 아프다. 지난 주 목요일 금통위를 앞두고도 전일까지 국고3년 금리가 2.35%까지 급락하면서 '내일 인하하는 거 아니에요?'하는 투자자들의 문의까지 더해졌다. 지금 이러한 내용을 쓰는 것 자체가 아프다는 증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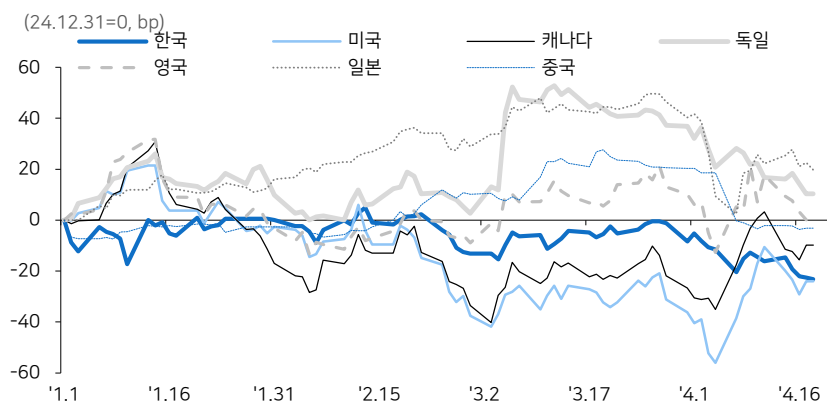
시장은 4월 금통위를 인하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해석

4월 금통위는 코멘트에도 썼지만, 인하 같은 동결이었다. 한은총재의 발언 자체를 비둘기적으로 볼 수 없으나 '지금은 알 수 없다'는 불확실성 자체를 두고 시장은 더 많은 기대를 하는 듯 보인다. 외국계 IB를 중심으로 올해 우리 성장률 전망은 1%도 채 되지 않은 충격에 빠질 것 같다는 보고가 늘었다. 일각에서는 기준금리 전망을 내년까지 1% 중반에서 1% 초반까지 제시하기 시작했다.

당사는 한국경제가 침체까지는 아니라는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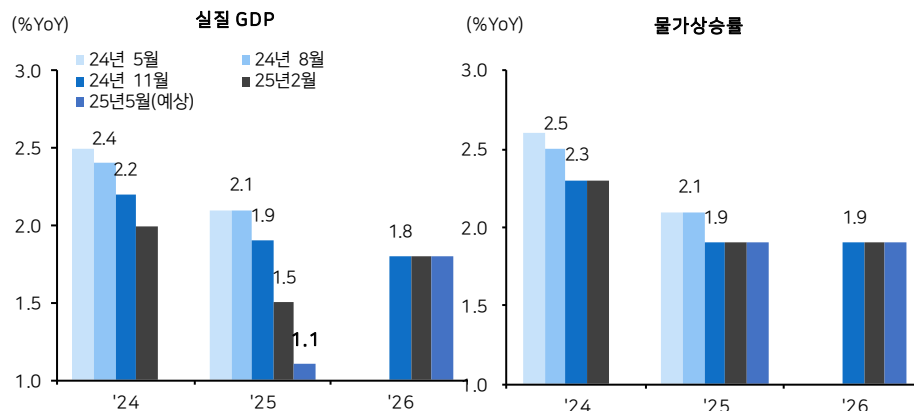
경기가 침체에 빠진다면 그럴 수 있다. 우리 역시 한국경제 침체 시 기준금리는 1.25%까지 낮아질 것으로 예전부터 예측해왔다. 그런 우리가 현재 2.25% 기준금리 전망을 유지하는 것은 침체를 전제하고 있지 않는 것이다.

그림1 주요국 10년금리 올해 움직임, 한국금리 꾸준히 하향안정 기조 유지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2 한국 성장률 하향조정 부담, 물가는 안정적 관리 예상



자료: 한국은행,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원화채의 안전자산 지위 견고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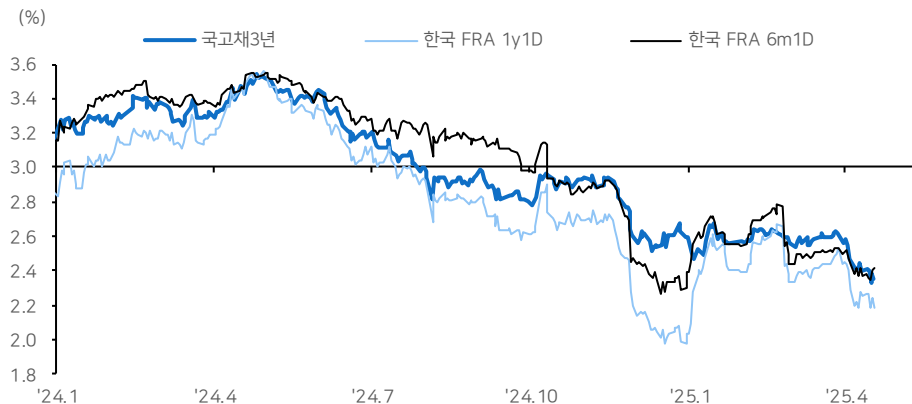
기축통화국도 아닌 우리가 경기침체에 빠진다고 하더라도 4천억달러가 넘는 글로벌 10위 이내 외환보유고와 순채권국의 지위를 감안할 때 원화채는 안전자산 대접을 받아도 된다고 생각한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올해 한국금리는 주요국 금리 중 유독 많이 하락한 편이다<표지, 그림 1>.

한은의 성장률 전망 하향조정
예상되나 침체 단정짓기엔 일러

5월 금통위 한은은 성장률 전망을 낮출 것으로 보여 경기둔화에 베팅한 강세 정도는 인정할 수 있으나, 1%대 성장은 침체라 말하기 어렵다<그림 2>. 추후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에 대한 합의와 새로운 정부의 경기부양을 위한 조치들을 감안해야 한은의 금리인하 기대를 가늠할 수 있다. 지금은 그 불확실성이 높아 금리인하 기대를 높여 반영한다고 하더라도 1~2년내 2.0% 이하는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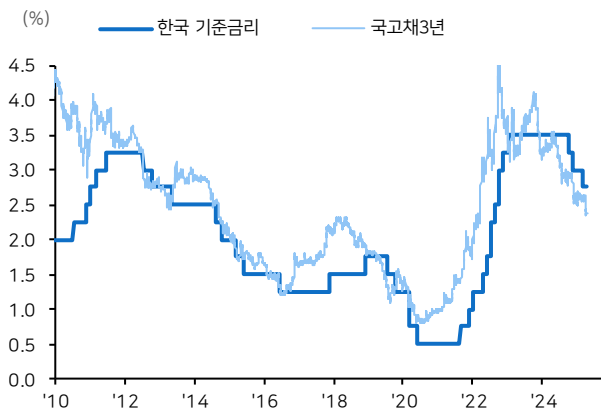
지난해 10월 첫 인하를 시작 불과 5번의 회의 중 3번을 인하했다. 5월 인하 시그널까지 포함하면 6번 중 4번이다. 현재 선도금리가 6개월 내에 2번 인하 기대를 반영하여 국고3년이 2.3%대까지 하락했다고 하나, 한국 채권시장이 강한 것은 미국금리와 단순 비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그림 5>.

그림3 한국 6개월 이내 2차례, 1년내 3차례까지도 인하 기대 반영하고 있어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4 국고3년 2.3%대, 기준금리보다 40bp 낮은 수준



자료: 한국은행, 금융투자협회,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5 미국금리 불안한 움직임, 한국채 더 안전자산 같아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경기만 보면 이번에도 인하할 수 있었다. 아니 1월에도 낮췄을 것이다. 두 번 인하의 소수의견을 제기한 신성환 위원도 있지 않은가? 우리는 현재 많은 불확실성 속에 한은의 금리인하 기대가 늘어나는 과정도 이해되나 4월 기준금리 동결을 전망하고, 올해 2.25%까지 낮춘 이후 신중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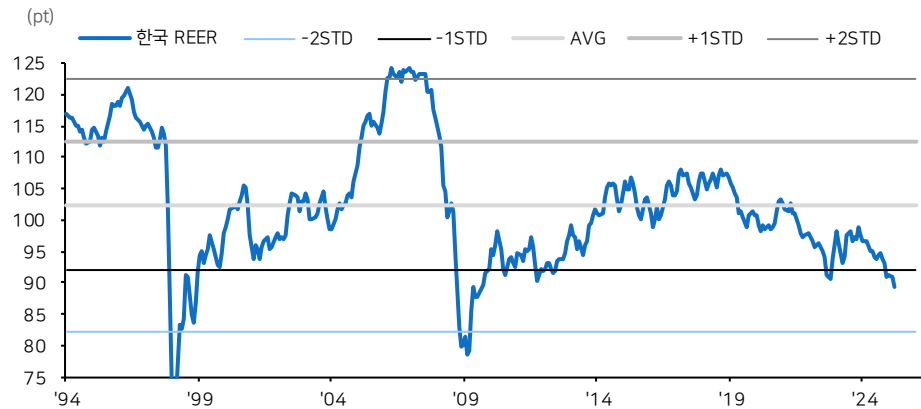
향후 수급 여건을 경계했었지만
금리는 예상치를 밑돌고 있어

경기둔화와 인하 사이클만 가지고 현재 국내 채권시장의 강세를 해석하기는 부족하다. 되려 필자와 대화하는 다수의 투자자들이 이번 동결과 향후 대선 전후로 늘어날 수 있는 재정정책에 대한 경계감을 가져왔던 것 대비 현재 금리는 당황스러울 정도로 낮은 레벨이다.

금번 원화채 강세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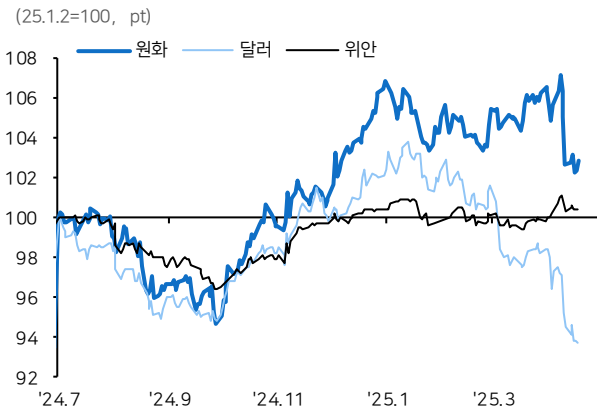
우리는 원화채 시장의 강세 배경에 1) 경기+통화정책 기대, 2) 외국인 현물 매수, 3) 아직 부족한 공급을 꼽고 있다. 일단 외국인이 1월까지만 해도 현물중심 매수가 정체되었는데, 2월 이후 2달반동안 현물만 16.7조원 매수했다. 지난해 3분기 미국 금리 급락 구간에서 매수세에 나선 이후 다시 대규모 매수에 나섰다. 외국인 현물 매수의 기저에는 원화 저평가 이슈가 있다는 생각이다<그림 6>.

그림6 원화 저평가 영역, 외국인 투자자 한국 관심도 높일 재료



자료: BIS,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7 위안화 대비 약했던 원화, 균형잡기 과정 필요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8 아직은 높은 변동성, 정책당국의 부담 요인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원화가 점차 안정을 찾을 것이라는 기대는 외국인 수급에 우호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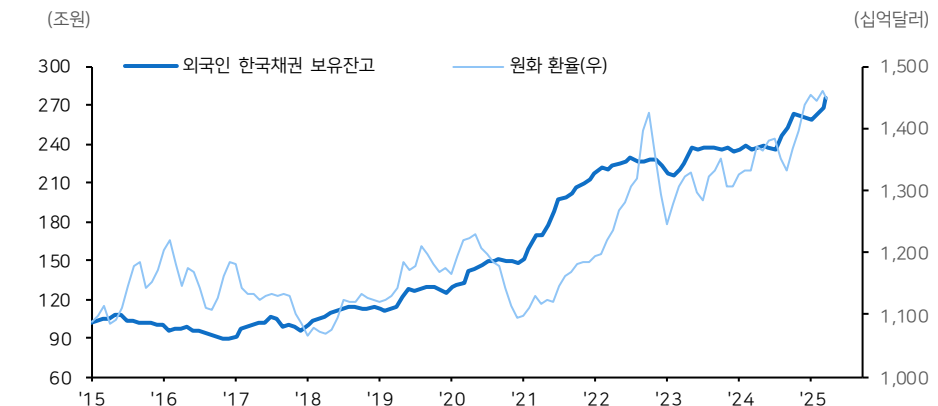
위안화보다도 트럼프 당선 전후로 유독 약했던 원화는 내부 정치혼란까지 가세해 취약성이 높았다. 높은 변동성으로 기준금리 인하에 금융안정 측면에서 거론되던 원화가 향후에는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가 높은 것이다. 단순히 환율 레벨에 연동해 외국인 매수세가 들어온다고 할 수 없으나 추이는 유사하다.

중국발 자금 유입 가능성이 거론되기도

한국 금융시장의 높은 변동성을 감안하더라도 최근 달러약세대비 원화가치 저평가 인식은 과도하게 높았다. 여기에 최근 부각되는 뉴스가 미국채를 매도한 중국 자금이 한국에 들어오고 있다는 부분이다. 물론 매도와 매수주체가 일치하겠느냐라는 과거 트럼프 1기 당시 미중 무역분쟁이 심화되던 2018년부터 2019년 100조원도 안되던 외국인 현물잔고가 130조원 가까이 급증했었다<그림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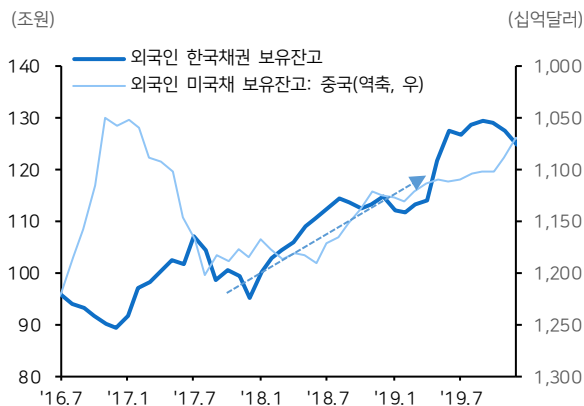
미국채를 일부 줄여서 유럽의 조세회피 국가들로 옮겨갔다는 평가도 있지만, 외환다변화 목적에서 한국은 원화가 위안화와 연동되는 자동헛지 기능까지 있어 중국 투자에 유력한 곳 중 하나이다. 실제 데이터가 제공되지 않고 있으나 현재 외국인 보유잔고 중 중국이 최다 보유국으로 알려져 있다.

그림9 외국인 현물잔고, 공개롭게 환율 레벨에 맞춰서 꾸준히 증가세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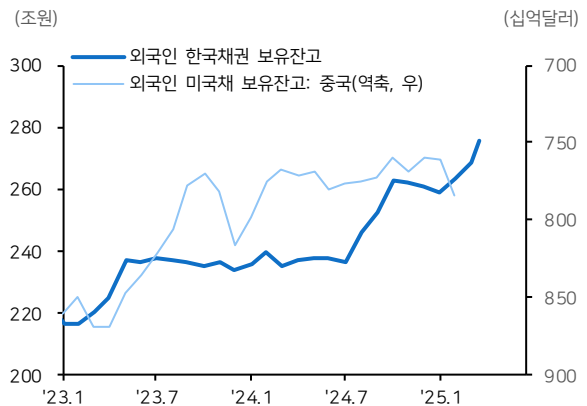
자료: 연합인포맥스, KRX,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0 트럼프 1기 무역분쟁, 외국인 현물투자 큰 폭 증가



자료: 연합인포맥스, UST,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1 최근 외국인 매수세 강화 역시 중국 이야기 들려



자료: 연합인포맥스, UST,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차익거래 유인이 확대된 점도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는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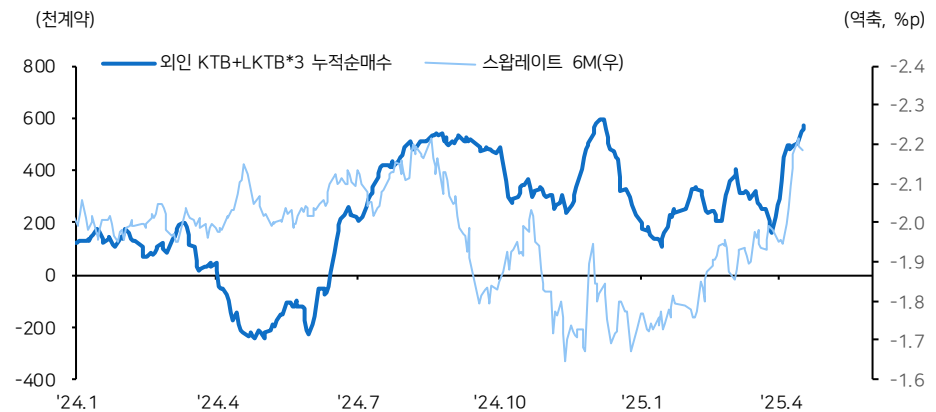
현물시장에서 매수주체가 중국으로 추정되는 자금 이외에 늘어난 차익거래 유인으로 들어오는 부분도 크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했다고 하나 높은 변동성으로 인해 스왑레이트는 역전폭이 더 크게 확대되어 차익거래 유인이 커진 상황이다<그림 12>.

이는 현선물 동시 매수세 강화에 일부 영향이 있었다고 본다. 펀더멘탈과 통화정책, 그리고 환헷지 없이 유입 중인 일부 외국인 투자에 있어서 한국 채권은 투자에 긍정적 환경임은 분명하다.

추세에 기반한 매수 유입 가능성도 고려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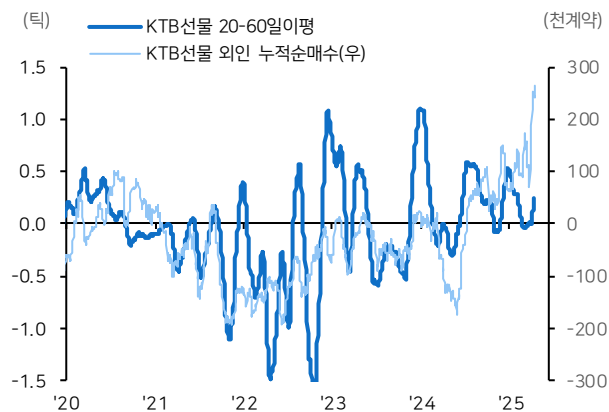
여기에 CTA와 같은 알고리즘 추세매매는 강했던 한국 채권시장을 더욱 강하게 만들었을 것이다. 차익거래 유인보다 이평선 추세기준 최근 한국채는 매수신호가 3년과 10년 선물 공히 강화된 모습이다<그림 13, 14>. 금통위를 앞두고 외국인 선물 매수는 금리인하 베팅보다는 CTA발 추종 매매가 더 유력하다.

그림12 높은 원화변동성, 외국인 차익거래 유인 높은 것도 매수세 일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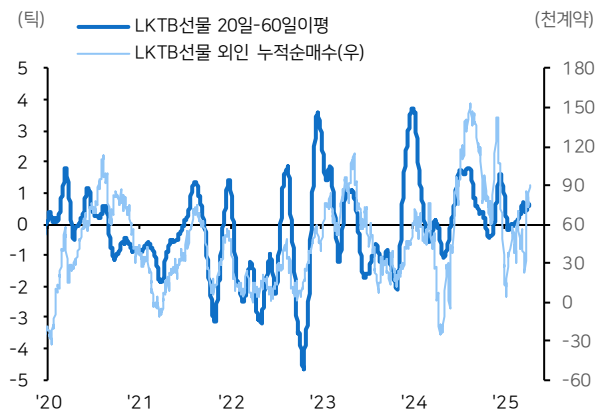
자료: KRX, 연합뉴스포맥스,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3 KTB 선물 CTA 추종 외국인 매수 유입 가능성



자료: KRX,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4 LKTB 선물 역시 유사한 상황



자료: KRX,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예상과 달리 원화채 공급부담
제한적

외국인이 주도한 수요 반대에는 국내 채권공급이 많지 않다는 배경도 점검할 부분이다. 올해 국고채는 지난해보다 40조원 가까이 급증하여 공급부담이 클 것으로 염려했으나, 올해 4월까지 은행채를 중심으로 크레딧 채권의 공급이 예상보다 적은 편이다<그림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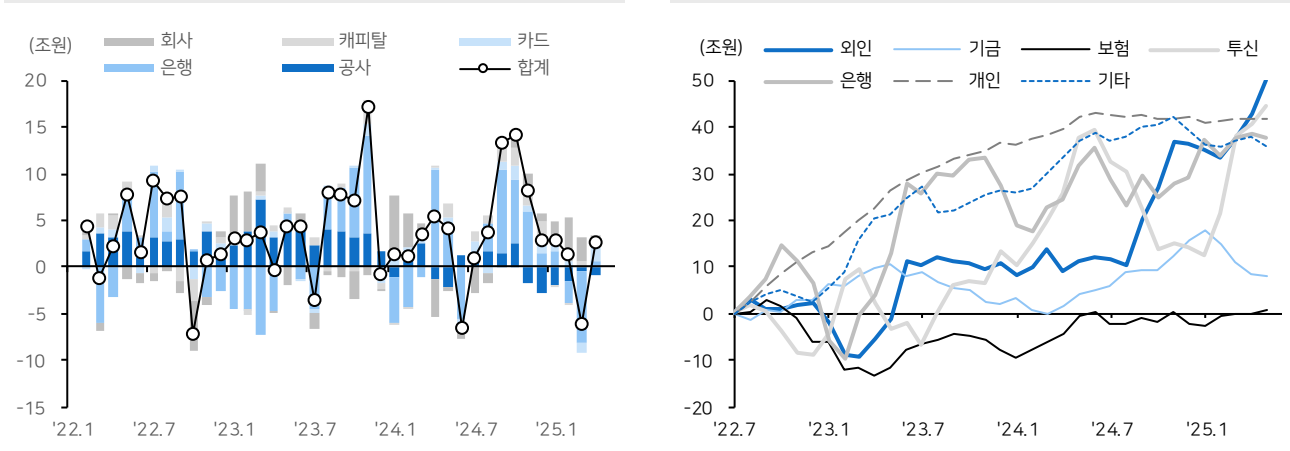
대안투자 마땅치 않기도

일부 롱플러스와 같은 신용이벤트까지 가세했다고 하나 당장 은행들은 조달해도 대출 불확실성이 높아 공급이 많지 않다. 크레딧 채권공급 부족은 신용스프레드가 타이트하게 유지되는데도 일조하고 있다. 여기에 수요는 외국인과 투신권 정도만 늘고, 나머지 투자자들의 경우 오히려 감소세마저 보이고 있는데, 대안투자가 뚝족하지 않아 채권시장 강세 분위기는 이어지고 있다.

다만 금리 반등을 견인할 수 있는
잠재 요인 여전히 남아있어

상기한 내용이 기준금리 인하 기대 이외에 국내 채권을 강하게 만드는 내용이었다. 다만, 6월 초에 예정된 대선까지 아직 시간은 있다고 하나, 확대재정과 관련된 내용들은 점차 구체화될 것이다. 이는 금리추세를 바꿀 정도의 재료까지는 아니라고 해도 현 고평가된 원화채에 영향을 미칠 재료이다<그림 17, 18>.

그림15 올해 4월까지 강하지 않은 크레딧 채권 공급 그림16 외국인과 투신 정도를 제외하고 약한 현물 수요



자료: 연합인포맥스,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7 필수추경 12.3조원, 적자국채 8조원 발행 그림18 6월 대선관련 확대재정 논의 더욱 강화될 것

'산불 추경' 여야주요 입장

국민의힘	추경규모	35조원 (2월 13일 발표)
정부 추진 공식화 10조원 (3월 30일 발표)	목적	대규모 소비진작 사업 포함 민생경제회복 및 경제성장
역대최대 피해 산불 대응, 인공지능(AI)·통상문제, 민생 지원 등	여당의 '산불 추경' 입장	여당 주장 추경은 민생과 경제 살리기에 규모가 턱없이 부족, 실질적이고 과감한 추경 편성 촉구
산불 피해 복구에 3~4조원 이상 소요 예상, 재난 대응 목적 예비비가 4천억원 수준에 불과해 추경 필요. 신속처리 위한 필수 예산	재난 예비비 추가 편성	올해 편성된 예비비가 아직 사용되지도 않았고 부처별 가용 예산이 남아있어 예비비 추경 불필요
산불·수해 등 재난 대응 위한 예비비 추경 편성 필요, 민주당 단독 삭감 예비비 약 2조원 증액해야		

연립뉴스 이재윤 기자 = yoon2@yna.co.kr / 20250331

민주당 첫 TV토론... '대규모 추경' 한목소리·중세는 이견(종합)

온다예 | 2025-04-18 22:28:01

김경수·김동연·이재명 "경제 어려워 대규모 추경 필요" 중세 놓고는 찬반 엇갈려...美 협상 전략 놓고도 견해 차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첫 TV 토론회

YONHAP NEWS

자료: 연합뉴스 자료: 연합인포맥스

미국금리 아직 신뢰성 회복 과정, 관세협상 결과가 중요

미국 금리하락에 대한 레버리지
베팅 과도했었던

미국 증시급락 중 도피처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 미국채 시장을 두고 안전자산의 지위에 대한 의심의 눈초리는 여전히 높다. 관련해서 내부 베이스 트레이딩 관련 구조를 설명하는 내용들이 이리저리 보이냐<그림 19>, 결론은 금리하락을 예상한 과도한 레버리지 베팅의 실패라는 것이다.

베이스 트레이딩에 대한 포지션
정리는 아직 진행중

이를 두고 현재 선물매도를 대규모로 진행한 헷지펀드와 기관투자자들의 포지션은 아직 제대로 해소되지 않고 있다<그림 20>. 현선물 차를 이용한 베팅의 구조가 풀리지 않았다고 해도 미국내 일반적 투자자들의 매도가 강하지 않았다는 것은 미국 금융기관들이 보유하고 있는 자체 데이터로 일부 입증된다<그림 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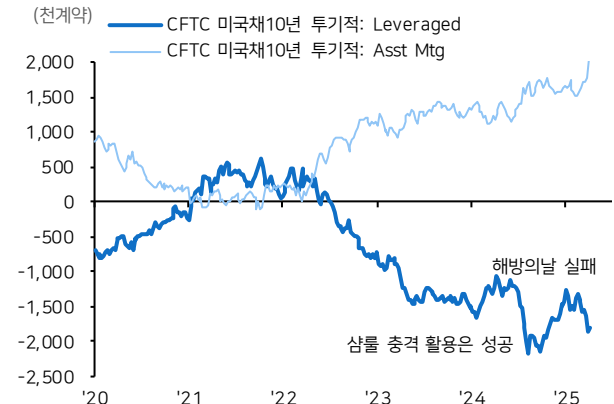
스왑을 이용한 베팅으로 역전폭이 확대된 본드스왑 역시 30년이 -90bp 가까운 수준이라는 점은 미국채 시장의 내부 수급꼬임이 아직 다 풀리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그림 22>. 그나마 지난 주 미국금리가 4월 11일 증가보다 16bp나 하락할 수 있었던 것은 대외매도가 약해진 정도로 풀이된다.

그림19 선도거래 중심 베이스 트레이딩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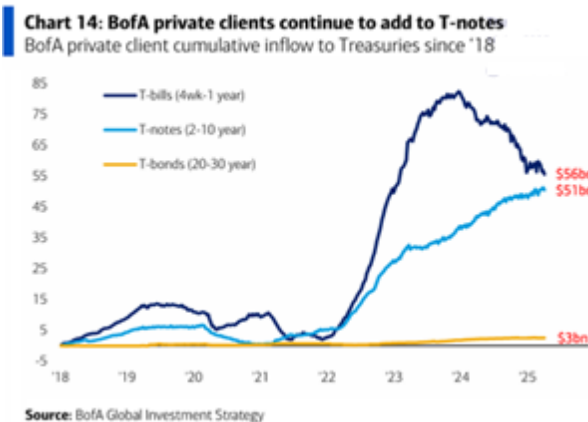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Intelligence

그림20 헷지펀드의 대규모 선물매도 vs 기관의 선물매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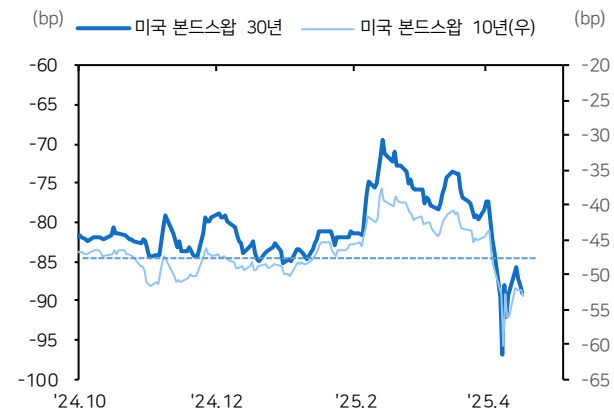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21 미국내 현물 투자자 증장기채 매도는 강하지 않아



자료: BofA BoA

그림22 스왑관련 꼬여있는 내부 수급 아직 풀리지 않아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공적기관의 미국채 매도는 포착되지 않고 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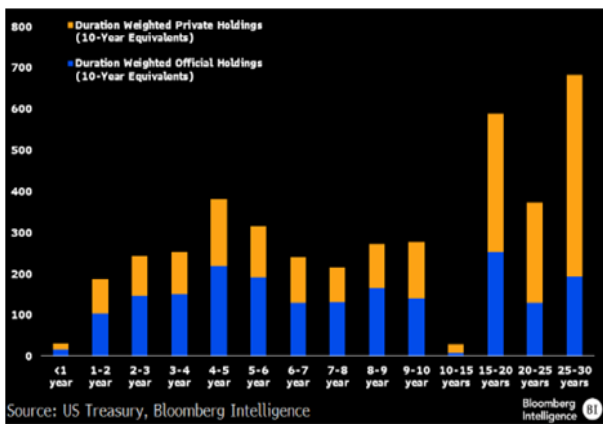
외국인 민간에서 대규모 보유하고 있는 미국 장기국채를 두고 중국의 매도설과 동시에 엔캐리 청산에 따른 일본 보험사들의 매도라는 이야기까지 나왔으나 현재 확인 수 있는 데이터로는 둘 다 메인은 아니다. 주간 단위로 확인되는 정부자금의 이탈은 4월 16일까지도 크게 확인되지 않았다<그림 24>.

그렇다면 중국의 매도 역시나 인민은행이 가지고 있는 외환보유고를 중심으로 한 매도는 아니라는 것이다. 이는 베센트 재무장관도 강조했지만 '쉽지 않은 일'이며, 실제 발생하면 미중간 갈등의 막장에서나 일어나는 일일 것이다. 일본 금융기관들의 매도는 4월 2일 주간 다소 강한 매도가 있었다고 하나 정작 7일 주간에는 매도가 미약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그림 25>.

미국 외 지역에서의 미국채 매도 확인돼

중국 정부와 일본 금융기관 매도가 아니었다고 하나 일부 데이터를 통해 미국채 해외 매도는 확인된다<그림 26>. 필자 역시 해외쪽 네트워크를 통해 중국 금융기관들의 달러자산, 특히 채권매도가 있었다는 것은 일부 확인했다. 미국금리 상승에도 급락하는 달러가치는 달러표시 자산의 매도를 의미한다<그림 27>.

그림23 민간 외국인 미국 장기국채 보유물량 많아



자료: Bloomberg Intelligence

그림24 4월 16일까지 공적기관들의 미국채 매도 거의 없어



그림25 4월 11일까지 일본 해외채 매도 역시 강하지 않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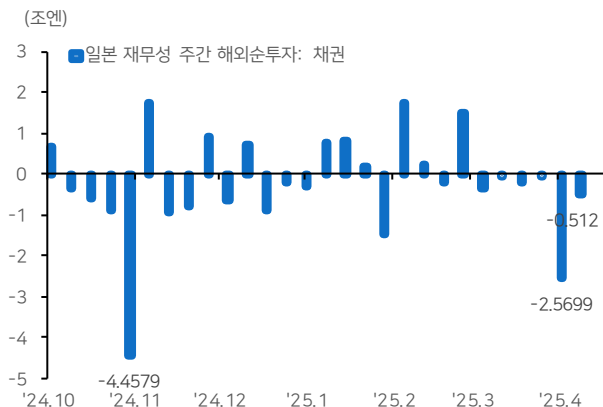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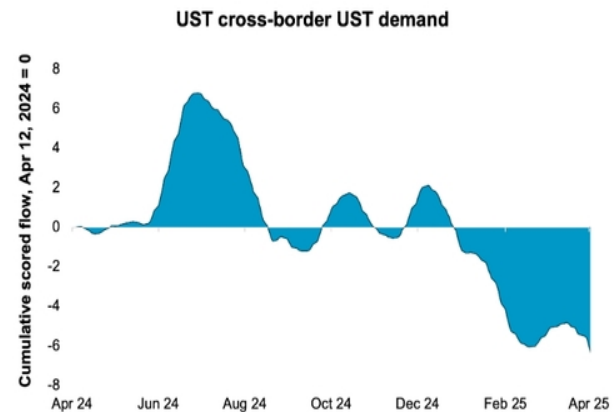


그림26 누군가 해외에서 미국채를 매도한 것은 사실



올해 들어와 약세를 보인 미국 증시는 해방의 날 이후 역시나 타격이 컸다. 홍콩 증시의 단기간 낙폭이 컸다고 하나 이후 미국금리 충격이 해소되고, 트럼프 관세 유예 이후 회복 과정도 미국보다 나은 국가들이 많다<그림 28>. 미국과 관세전쟁 속 중국 이외에 다수 국가들이 달러자산을 매도할 유인이 늘어난 것은 맞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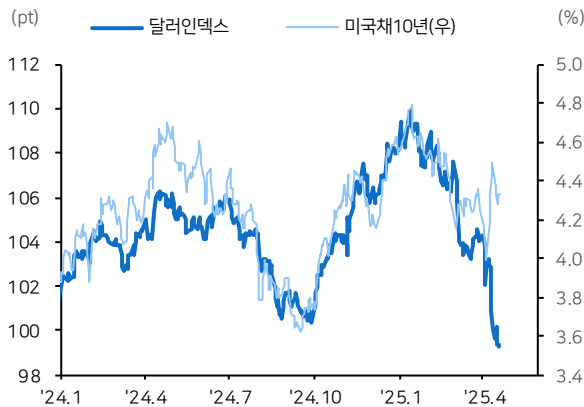
연준의 대응 여력이 제한되는 상황

미국 성장률 전망은 1% 중반을 향해 하향조정이 심화되고 있고, 일부 IB들은 1%도 안될 위험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 관세의 불확실성은 물가전망을 지지하고 있어 연준으로 하여금 대응을 어렵게 하고 있다. 지난 주 파월의장의 '금리인하 신중론'은 여기에 근거하며, 월러 같은 비둘기도 존재하나 다수는 '물가'를 무시할 수 없다고 항변한다.

인하 제대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파월 해임 보다 관세 충격 줄여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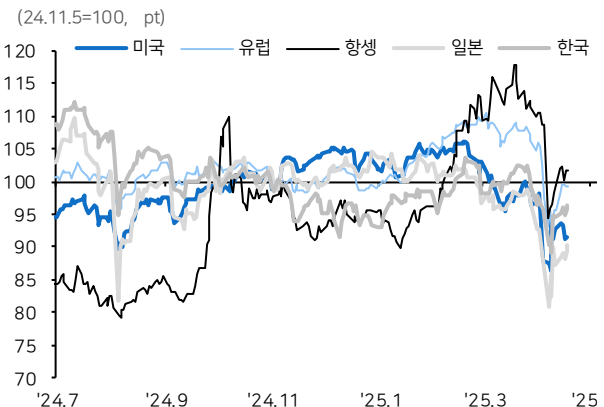
트럼프는 파월의장을 '해임'시킬 수 있다고 억압하고 있지만, 지금도 혼란스러운 미국 금융시장에 더 큰 약재를 만들 수 있다. 내년 6월까지 임기인 파월을 자르는 것보다 관세부과의 충격을 줄이는 것이 더 중요할 것이다. 그래야 현재 시장에 반영된 올해 3~4차례 금리인하라도 제대로 실행할 수 있을 것이다<그림 30>.

그림27 금리대비 약한 달러, 달러표시 자산 매도는 분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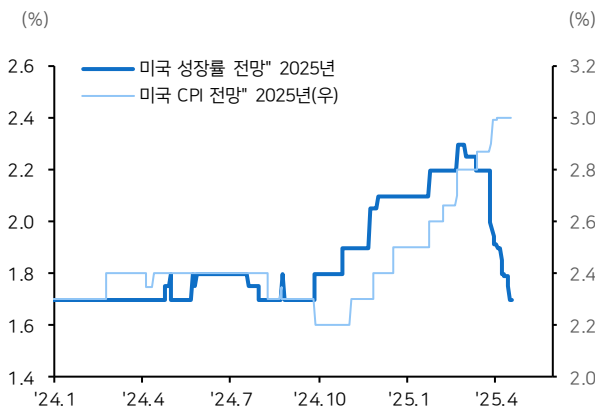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28 해방의 날 충격, 주요국 중 미국 개선 강도 약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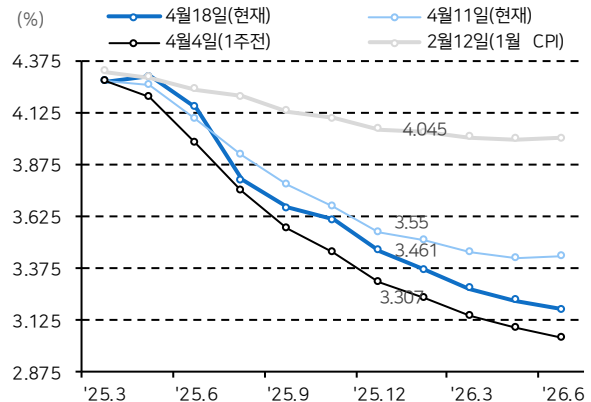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29 스태그플레이션 뉘앙스, 깊어지는 연준의 고민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30 그래도 하반기는 연준의 시간, 3~4차례 인하 전망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주간 이벤트 및 평가(4월 21일 주간)

— 중량감 있는 미국 실물지표 발표 부재한 가운데 소프트웨어에 주목할 것으로 예상. 블랙아웃 기간을 앞두고 연준 내부의 생각을 들을 수 있는 마지막 주간이라는 점에서 어떤 시그널을 보낼 지도 확인해볼 필요

표1 금주 이벤트 프리뷰

일자	국가	이벤트	중요도	이전치	코멘트
4월 21일	중국	4월 대출우대금리 (LPR 1Y/5Y)	★★	3.10%/3.60%	미중 무역갈등으로 인한 수요 충격 유입될 수 있다는 점에서 통화정책 필요성 커지고 있어 이전처럼 동결하기에는 부담 커
4월 22일	미국	미국 빅테크 기업 어닝시즌	★★	—	22일(테슬라), 23일(메타), 24일(MS, 알파벳) 등 관세 불확실성이 주요 기업의 실적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언급 나올지 점검
4월 23일	미국	3월 내구재 주문(잠정)	★★	1.0% MoM	3월 항공기 주문 급등 영향으로 헤드라인 지표는 전월대비 상승했을 가능성 커. 다만 운송장비 부문을 제외한 내구재 주문은 기업들이 장기적인 확장 계획을 세우기 어려운 여건 탓에 하락했을 것으로 판단
4월 23일	미국	4월 S&P 제조업 PMI(잠정)	★★	50.2	미국과 중국 양국간의 관세 보복성 대응 이어지고 있어 지표 개선 쉽지 않아 당분간 기업 활동의 둔화세 지속될 전망
4월 23일	한국	4월 소비자 신뢰지수	★★	93.4	이창용 총재가 언급했듯 경기 심리 등이 아직까지 일상적인 수준까지 회복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지표 흐름 부진할 전망
4월 24일	독일	4월 IFO 기업환경지수	★★	86.7	유로존의 심리지표 침체 가능성이 빠르게 하락 전환하고 있어 하방 서프라이즈 가능성 염두해둬야
4월 24일	미국	연준 베이지북 발표	★★★★	—	지역별 경기조사들은 경제활동이 미미하게 증가했을 것으로 시사하겠지만 관세 관련 불확실성이 투자와 투자를 위축시키고 있다는 현장 사례도 언급될 것
4월 24일	한국	한국 1Q25 GDP	★★★★	0.1% QoQ	수출 모멘텀 약화+내수부진 지속+재정정책 부재로 블룸버그 컨센서스는 +0.1% QoQ. 1분기 역성장 가능성 제기되었던 만큼 예상치 하회 가능성 배제 못해
4월 24일	한국	5월 국고채발행계획발표	★★	17.0조원	연초부터 지금까지의 국발계 규모와 높았던 장기물 발행 비중을 감안하면 전보다 장기물 발행 규모 점차 줄어든 것이라는 판단
4월 26일	미국	연준 블랙아웃 기간	—	—	FOMC 참가자들이 통화정책 발언을 삼가는 블랙아웃 기간 시작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정리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